개혁주의적 입장에서 루터의 재조명

김이레
(성균관대학교 석사과정)

요약

이 글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첫 종교개혁의 문을 연 루터에 관한 연구이다. 개혁주의 신앙 속에서 간과되고 있는 루터의 신학에 대하여 다시 정리하고 그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종교개혁 이후 개혁주의 신학은 계속해서 발전해왔다. 그러나 그 발전에 있어서 처음 화두를 연 루터에 대한 관심은 미비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잇는 신학인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루터의 신학을 바라봄으로 다시 그 의미를 현대 신앙 속에 가져오려 한다.

무엇보다도 루터에 대하여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재조명하려는 이유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잇는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많은 기독교 교파들 가운데 본 연구자가 따르고 있는 교파 또한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혁주의 신학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정리하고 개혁주의 신학과 루터의 신학이 무엇이 다른지 이해하려 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루터신학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하려 한다.

주제어: 개혁주의, 종교개혁, 루터, 십자가신학, 칭의론

Ⅰ. 서론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가 대학교회 게시판에 붙인 토론문[1]으로 종교개혁의 불씨가 지펴졌다. 토론문은 95개의 조항으로, 당시 교회가 가르치는 잘못된 주장에 대해 토론할 것을 제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2017년 현재, 루터로 시작된 종교개혁은 50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현재 개신교신학이 여기에 있게 된 것은 500년 전 루터가 피운 작은 불씨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시작으로 뒤이은 쯔빙글리와 칼빈, 존 낙스 등 개혁자들에 의해 중세사회가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개신교신학의 시초이다.

이러한 종교개혁 이후에 세워진, 종교개혁의 정신을 잇는 신학을 흔히들 개혁주의 신학이라 말한다. 현대 한국 장로교, 특히나 고신 교단 내에서는 이 '개혁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그에 대하여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또한 거의 없을 것이다. 개혁주의라는 말은 현대 신앙인들에게 너무나 추상적인 의미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루터의 종교개혁이 만든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이라 받아들이고 있다. 그저 단순하게 '루터로 인해 시작되었으며 칼빈으로 정리되고 마무리되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이라 정의되고

1) 루터가 95개조를 독일어가 아닌 라틴어로 게재한 것은, 당시 교회의 잘못된 구원관에 대해 식자층의 사람들과 토론할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이상규, 2007). 당시 독일에는 독일어도 읽지 못하는 문맹자들이 대다수였으며 라틴어를 이해할 수 있는 인구는 유럽 인구의 5%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루터가 게재한 95개조 조항에 대하여 '토론문'이라는 용어로 칭하도록 하겠다.

있다. 500년 전 이루어진 종교개혁의 의미조차 '루터라는 사람이 면벌부에 반대하여 비텐베르그 대학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다더라'로 가볍게 인식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람들의 인식은 개혁주의 신학의 정신 자체를 흐려지게 만들었으며, 개혁주의라 하면 무조건 꽉 막히고 보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거부감을 가지게 하였다. 진리를 거부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세련됨과 덕이 되는 현 포스트모더니즘의 사회 속에서 개혁주의 신앙은, 옛 것을 옹호하는 꽉 막힌 사람들의 신앙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또한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종교개혁을 단순히 '옛날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개혁주의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개혁주의 신학의 정립에 시초가 된 루터가 한 종교개혁이 어떤 의미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종교개혁을 시작한 사람은 루터인데 종교개혁을 생각하면 칼빈만을 떠올리는 사람이 대다수이다. 이는 현 개혁주의 신학이 칼빈주의 신학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리라 생각된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린 루터에 대하여 재조명하고자 한다. 종교개혁으로 인해 정립된 개혁주의적 신학의 입장에서, 개혁주의가 왜 종교개혁의 시작인 루터주의가 아니라 칼빈주의를 택하게 되었는지 신학적 이해의 기초를 더해 가고자 한다.

Ⅱ. 개혁주의

1. 개혁주의의 정의

개혁주의(改革主義)의 사전적 정의는 새롭게 고쳐나간다는 것이다. 한자로 '고칠 개' 자에 '가죽 혁' 자를 쓰는 것은 가죽을 고치는 것처럼, 성경에 비추어 바르지 못한 것들을 고쳐나간다는 것이다. 보통 우리가 종교개혁 신학이라고 할 때 그것은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운동과 그 신학을 통칭하는 용어로 볼 수 있다. 이 신학은 개신교신학의 근간이 되며, 복음주의 신학 혹은 개혁 신학의 기초를 이룬다. 그러나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보다 한정적이다. 개혁주의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신학적 의미와 역사적 배경, 전체를 통해서 정의하여야 한다.(이상규, 2007)

개혁주의 신학이란 그 용어를 사용한 때에 따라 다른 의미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1517년 종교개혁 이후 1560년대까지는 '개혁'이라는 명칭에 루터교가 포함되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운동과 그 신학을 통칭하는 용어인 것이다. 그리고 1590년대 이후 비로소 루터교회와 개혁교회의 구분이 명료해진다. 더 진정한 의미에서 개혁주의란 쯔빙글리(Zwingli, 1484-1531)와 칼빈(Calvin, 1509-1564)의 개혁운동을 루터(Luther, 1483-1546)의 개혁운동에 의해 생선된 '루터파'(Lutheran)와 구별하기 위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루터주의와의 구분을 위한 명칭인 것이다. 따라서 개혁주의 신학은 광의적 의미와 협의적 의미 두 가지로 지는데, 연원적으로 개혁주의는 루터주의와의 구별을 의미한다.

이 개혁주의가 한국에서 말하는 개혁주의이다. 16세기 종교개혁자인 쯔빙글리와 칼빈에 의해 시작된 개혁교회의 신학으로, 이 교회가 독일, 화란, 프랑스, 스코틀랜드 등 다양한 나라로 퍼지게 되었다. 그리고 17세기 이후 미국을 통해 한국에 소개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혁주의라 함은 종교개혁과 관련지어 그 성격을 규정짓는 경우가 많다. 루터의 95개조 토론문에 의해 세워진 것이 개혁주의

신학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로 종교개혁 당시 개혁주의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개혁”을 의미한다(하달리, 1990:13). 이러한 견해는 넓은 의미로는 틀리지 않지만, 현재 지니게 된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 이제는 루터교회와 대비되는 교단들, 즉 칼빈에 의해 주창된 교리체제와 교회체제, 정책을 따르며 며러 가지 개혁된 신앙고백을 하는 교단(교회)의 신학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이처럼 16세기 종교개혁은 루터파와 개혁파 두 형태의 교회를 형성했다. 개혁파는 루터파의 신학과의 구별하는 의미를 지니고, 그 이유는 개혁 정도의 차이에 있다. 루터파나 개혁파 모두 로마 카톨릭의 사제주의를 비판하고 성경적 교회를 지향했다. 그러나 개혁파는 루터파보다 더 철저한 개혁을 단행했다. 이는 곧 로마 카톨릭적 잔재를 배격하는데 있어서 보다 철저했다는 뜻이다. 개혁파교회는 루터파보다 더 철저하게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했다. 칼빈은 모든 문제는 성경에 근거하여 철저한 개혁을 시도함으로서 성경적 근거가 없는 로마 카톨릭의 전통들, 곧 로마교적 의식과 관행을 말끔히 제거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회사학자인 베인톤(R. Bainton, 1894-1984)은 “개혁주의란 반 사제주의일 뿐만 아니라 루터주의의 개혁”이라고 말한 바 있다(이상규, 2007).

이와 같이 개혁주의 신학사상은 종교개혁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그 원천은 종교 개혁가 존 칼빈의 신학에 두고 있다. 이러한 개혁주의 신학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개혁주의 신학은 칼빈의 종교개혁의 신학을 구심점으로 삼아 형성되고 있는 신학사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혁주의적 신앙은 교회 생활과 개인 신앙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곧 철저한 성경중심적 교회이다. 따라서 미국 칼빈신학교 교수였던 클로스터는 개혁주의의 독특성이란 바로 ‘성경적 원리’라고 말한 바 있다(이상규, 2007).

2. 개혁주의 신학의 특징

개혁주의는 오직 성경에 기초하여 신관, 우주관, 신앙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규명한다.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근거로 삼아서,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강조한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문화변혁적 삶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 목표이다. 교회의 정치제도에 있어서도 인간 중심의 위계제도나 특권층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로마 카톨릭의 사제주의나 교권주의를 배격한다.

이 개혁주의 신학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강조하는 하나님 중심 신학, 성경의 원리를 강조하는 성경 중심 신학, 교회적 삶을 강조하는 교회 중심의 식으로 설명되어 왔다.

(1)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란 개혁주의 신학의 근간으로서, 신학의 중심 주제는 인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곧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령으로서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을 알고 그를 신뢰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실제로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가운데 있는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 하는 것입니다”라고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 삶을 지향한다. 그래서 엄격한 칼빈주의자들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저주도 받겠다”고 말하여 자신들의 신앙 입장을 다소 지나치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다(하달리, 1990).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을 16세기적 상황에서 말하면 인간이 중심이던 당시 시대적 유행을 거부하고 인간이 중심일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는 곧 인간인 교황도 중심일 수 없음을 이야기한다. 개혁주의는 창조주되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철저하게 그 피조물인 인간을 엄격하게 구별한다. 인간은 절대 특수한 위치에 둘 수 없다. 자연과 인간과 우주의 통치자되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강조한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 사상이다.

이와 같이 개혁주의 신학은 모든 것의 주인이자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신학이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인간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성취하시고 적용시킨다는 사실을 신뢰한다. 인간이 해야할 노력은 없다. 인간은 그저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 따라서 개혁주의 신학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만 남는다.

(2) 성경 중심

성경 중심이란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이란 점을 강조한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한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구호이기도 한 '오직 성경', 곧 기록된 성경 외에는 어떤 것도 신앙의 표준일 수 없고 신학의 원천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한다.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사고와 행위의 최고 규범과 권위가 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로마 카톨릭은 성경 외에도 소위 성전이라는 '전통'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로 받아들인다. 때로는 전경을 성경보다 우월한 권위로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성경을 해석하기도 하였다. 개혁주의는 '오직 성경'과 함께 성경에 다른 어떤 것을 더하거나 감하는 것을 반대하는 '모든 성경'을 강조한다(이상규, 2007). 또 성경은 성경 자신이 해석한다는 원리를 고수한다. 다른 어떤 해석할 도구가 따로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성경의 내용은 오직 성경에 의해서만 구체적으로 이야기된다.

루터를 포함한 개혁자들은 자신이 주장하는 신학이 옳다는 근거를 성경에서 들었다. 개혁주의는 성경중심신학으로, 성경에 신적 권위를 부여한다. 모든 문제를 성경말씀으로, 그리고 그 성경 말씀에 입각한 원리에서 출발한다. 개혁주의 신학은 "성경이 가는데까지만 가고, 멈춘 곳에서 멈춘다"고 하는 원리에 충실하면서 이 성경을 지상권위로 받아들이고 이에 복종한다.

(3) 교회중심

개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은 하나님의 교회이자 그 하나님의 교회 건설이다. 신학은 근본적으로 교회를 위한 학문이며, 교회를 섬기는 학문이다. 개혁주의 신학은 이 점을 강조한다. 로마 카톨릭은 하나남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서 실현된다고 하여 그 교회와 신국을 동일시하지만, 칼빈을 비롯한 개혁자들은 오직 선택된 자들로 구성되는 우주적인 교회, 곧 무형교회 혹은 불가견적 교회를 말하면서도 선택받지 못한 사람도 회원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상의 교회, 곧 유형교회 혹은 가견적 교회로 구분했다. 개혁주의는 지상교회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면서도 완전을 향한 추구를 경시하지 않는다. 이것이 교회갱신 혹은 교회 개혁 운동이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서 있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적 삶을 추구하며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려고 힘쓴다.

개혁주의는 현재의 삶과 무관한 공허한 이념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 삶의 신학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사는 삶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문화적 소명을 지니고 있음을 고백한다. 신자의 삶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것이 곧 개혁주의 신학의 목표가 된다.

Ⅲ. 루터의 신학

1. 개혁정신의 본질

루터의 종교개혁은 사제주의에 대한 반대로, 성경에 기초하여 교회를 개혁하고자 한 점에서 일어났다. 루터주의와 개혁주의의 차이점은 개혁주의가 더 철저한 개혁을 시도하였다는데 있다. 워필드가 루터파와 개혁파 사이의 차이점은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라고 말했던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한 말일 것이다. 루터를 재조명하기에 앞서 그가 말한 신학체계들이 무엇인지 먼저 이야기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먼저 루터만이 아니라 칼빈을 비롯한 모든 개혁자들의 공통된 주장이자 복음주의 신학의 기초가 된, 개혁정신의 본질로서 루터의 신학체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칭의론

칭의교리는 루터의 종교개혁 신학의 중심이자 그의 사상의 핵심이다. 루터의 칭의론은 하나님의 의의 발견에서 시작하여 이 의가 인간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 외부로루터 온 그리스도의 외적인 의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루터가 말하는 이신칭의는 다음과 같다.

>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이 나게 하는(요1:13)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행동이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옛 아담을 죽이고, 우리를 마음과 의지와 생각과 모든 힘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게 하며, 성령을 동반하여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다. 오, 믿음은 생명력이 있고, 활동력이 있는 것이며, 일하는 것이요,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중단 없이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믿음으로부터 행동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마치 불에서 열과 빛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과도 같다."(M. Luther, 1522)

이 그리스도의 의는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을 대가로 지불된 의이다. 이러한 방향 속에서 루터의 믿음과 성화의 개념이 규정된다. 루터가 말하는 이신칭의는 소위 말하는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사변적인 개념이 아니다. 또한 비실천적인 영역의 것도 아니다. 그가 말하는 이신칭의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다. 인격적이고도 직접적인 역사이자,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비상한 방법이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그 영혼이 감화되어 아가페적 사랑으로 그 존재구조가 바뀌게 하고,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힘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게 하며, 성령으로 하여금 내 안에 거하여 다스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 이것이 바로 루터가 말하는 이신칭의 신학을 통해 드러난 인간 본성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루터의 칭의론은 그의 '하나님의 의'의 발견에서 시작된다. 루터의 공헌은 하나님의 의에 관한 성경의 의미를 해석한 것이다. 루터 칭의론의 새로운 면모는 로마서 1장 17절의 하나님의 의에 대한 복음적 깨달음에서 비롯되었다.

> "나는 하나님의 의가 의인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분의 선물, 곧 믿음임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계시되었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믿음에 의해서 자비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수동적인 의이다. 이 때 나는 내가 거듭났고 열린 문을 통해 낙원으로 들어왔음을 느낀다."(M. Luther, 1522)

루터가 발견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부로부터 주어진 의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자비이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보다 깊고 심오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나님의 의는 중세의 칭의신학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칭의를 위한 선제조건을 만족시키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종류의 의가 아니다. 이 의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친히 준비하시고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의이다. 하나님은 구원에 관해 주도권과 우선권을 갖고 죄인을 의롭게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신다. 그 필요한 것이 바로 유일한 '하나님의 의'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죄인된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성취하여 이루어 놓은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죄인에게 거저 주시는 은총으로서 선포되는 의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안에서 나타난다.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고난과 십자가 안에 나타난 그의 계시 안에 숨어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인식하는 자가 바로 십자가의 신학자이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칭의 교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재평가하도록 하게 하였고, 이 사실은 결국 루터를 십자가 신학으로 이끌어준다. 루터는 사람이 '믿음'이라는 이 의에 의해서 외롭게 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의이다. 이 의는 믿음의 의이다. 즉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주시는 의이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 이외에도 루터의 믿음 개념에는 몇가지 특징적인 면들이 있다. 루터는 믿음의 실존적 차원의 성격을 강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인정하고 붙잡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나 때문에 오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다. 또한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이며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현존과 연결된다는 점이다. 루터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이다. 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인간과 함께 인간 안에 존재하게 되었다. 즉,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박은제, 2004). 성도의 의는 그에게 외부적인 낯선 것이고 또 낯선 것으로 남아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성도의 안에 참으로 현존하셔서 그를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붙잡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 믿음은 그 자체로 의롭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통해서 성도 안에 친히 현조하시기 때문에 의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때문에 칭의를 얻는다고 말해서는 안된다. 믿음으로 붙잡는 그리스도 때문에 칭의를 얻는 것이다. 루터에 의하면, 칭의는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이다.

결국 루터의 믿음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으로 이해된다. 의롭게 하는 믿음은 오로지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동시에 '진실로 주입된 믿음'이다.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은 복음의 내용에 대한 역사적인 지식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루터는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믿음의 충분한 의미를 받아들였다. 루터에 의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을 붙잡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믿음은 하나님의 행위이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 곧 그리스도의 외적 의를 붙잡는 믿음이고, 그리스도의 외적 의가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다.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서 그리스도를 성도의 안에 현존하게 만든다.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함께 인간 안에 존재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외부적이고 절대적인

차원의 것인 반면에, 믿음은 인간 내부에서 일어나고 은혜 아래서만 의미가 있는 상대적인 것이다. 따라서 믿음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을 가능케 해주는 유일한 일이다. 또한 믿음과 그리스도는 서로 불가분리적 관계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때문에 칭의를 얻는다는 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칭의를 얻는다는 말은 동일한 의미이다. 그러나 믿음 때문에 칭의를 얻는다는 말로 충분하다.

성화의 문제에 있어서, 루터에게 칭의와 성화의 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성화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이뤄지는 것이며, 그 나라도 시련을 통해서만 이뤄진다고 했다. 루터의 성화 개념은 독립된 개념으로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것은 칭의를 경험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계속되는 성령의 사역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칭의의 개념이 그리스도의 의를 기초로 하고 있듯이 매일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거룩함의 진보에 있어서도 완전하게 의롭고 거룩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화의 근거가 된다.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성도는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에 만족하지 않으며 계속적인 육의 유혹을 제어하기 위하여 성령의 도움에 힘입어서 자신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는 삶을 계속하게 된다는 것이 루터의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내용이 될 것이다.

루터는 칭의를 경험한 자는 계속하여 영의 도움을 받아 육의 악한 사욕을 제어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비록 의롭게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한 탐욕을 완전히 제거한 것은 아니다. 신앙으로 육체의 소용을 굴복시키기 시작한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육은 계속하여 원하는 바를 행하고자 꿈틀거린다. 그러므로 영은 날마다 육을 길들여서 굴복하도록 해야 한다. 진정한 믿음은 육을 공략하여 그것을 잘 붙드는 것이며 육이 하고자하는 바를 막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육체의 소욕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십자가를 우리에게 제시하신다. 여기서 루터의 십자가 신학이 대두된다.

(2) 십자가 신학

루터의 십자가 신학의 배경은 루터의 칭의론이 된다. 루터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신학을 꼽으라고 한다면 두말할 것 없이 루터의 십자가 신학을 꼽을 것이다. 그의 여러 사상들은 모두 십자가의 맥락에 서있다(박은제, 2004). 루터가 의인의 교리를 깨닫게 된 원인과 배경을 살펴보면 그 뿌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학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게 된다. 루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시작하고 있다. 루터의 십자가 신학은 대양을 균형있게 바라볼 수 있는 지도 역할을 한다. 이 점을 정확히 따라간다면 우리는 성경과 신학의 파노라마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루터는 수년간의 신학적이고 영적인 고투를 통해서 어렵게 얻은 신학적 통찰을 모아서 십자가 신학이라고 하는 영적인 무기를 만들어낸 것이다(E. McGreth, 1988).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 참 신학과 하나님의 지식이 있다.” 루터의 이 유명한 표현은 루터의 십자가의 신학을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한 말이라 할 수 있다. 루터 신학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신학은 모든 신학의 출발점과 귀결점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준다. 이 신학은 안일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십자가 상의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과 시련을 거쳐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진리를 역설적으로 선포하는 신학인 것이다. 루터의 십자가 신학의 독특한 점은 고난을 통해서 발견된다는 것이다.

루터의 십자가 신학은 인간의 이성과 도덕성, 우주의 질서, 그리고 계급화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항하여 하나님을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찾음으로 신 인식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전환을 주장한다. 십자가신학은 믿음과 이성을 구분한다. 구원의 영역에서 믿음과 행위를 혼동하지 않음으로, 십자가신학의 구원론은 오직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십자가 신학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규정한다는 점이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십자가적 삶을 살 때에만 정녕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즉, 십자가적 삶을 살 때 교회는 교회다울 수 있게 된다.

결국 십자가의 신학은 계시의 신학이다.'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알려지는 것이다.' 루터의 십자가 신학에서 계시되는 하나님의 계시는 세상의 지혜와는 반대가 되는 것이다. 신앙이나 경험이 없이는 이를 바로 이해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숨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해해야 한다. 십자가의 신학은 믿음의 신학이며 역설적이다. 십자가는 치욕, 가난, 죽음, 비참함이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힘이 약함 속에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약함 가운데서 나타나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다.

루터의 십자가 신학은 우선 인식론적으로 볼 때, 인간의 이성과 도덕성, 세계의 질서 그리고 교회의 영광 아닌 고통과 멸시와 거부와 어둠의 십자가에서 인식된다고 주장한다. 구원론적으로 볼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주어진다고 말함으로 철두철미 구원에 있어서의 은혜의 주도성을 말한다. 삶의 방식으로 볼 때 사랑과 자기희생, 총체적 헌신과 복종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길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루터의 칭의론은 그 자체로 기독교적 윤리를 이끌어낸다. 칭의는 십자가 신학이 그 객관적 근거가 되며,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요구하게 된다. 루터의 칭의론의 배경을 살펴보면 비윤리적 사상의 흔적이 전혀 없다. 오히려 칭의가 진정한 선행을 비로소 가능하게 한다고 역설하는 것이다.

> "칭의된 인간은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게으르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며, 오히려 육신을 순종시키기 위하여 많은 선한 행위를 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들은 인간이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섬길 의무가 있는 자로서 이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 자발적인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때 오로지 하나님의 기뻐하심만을 바라보며, 그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열납하심에 열심을 다하여 일치하기를 원하는 것이다."(M. Luther, 1983)

따라서 칭의론과 십자가신학과의 상관관계에서 유추해볼 때 루터의 십자가의 신학은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손규태, 2004). 하나님은 사람들이 믿음과 희망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루터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수도원이라는 제한된 담장 속에 갇혀서 혼자만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웃의 고통을 함께 고민하고 나눔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 하였다. 기독교인들이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직업에 종사하는 것도 이러한 십자가의 윤리적 바탕 위에서 행해야 하는 것이다.

루터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는 그의 신학에 중심 틀이요 주제이다(박은제, 2004). 그러므로 그의 신학은 구속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성경을 해석했고, 그의 모든 신학을 수립했다. 원리는 십자가이며 그의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이다. 그의 신학사상인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오직 믿음(Sola Fide), 오직 은혜(Sola Gratia), 오직 그리스도(Sola Christus)도 그 기

초를 십자가의 신학에 두고 있다. 모든 좋은 것들은 십자가 안에, 십자가 밑에 감추어져 있음으로 십자가 밖에서는 그 어디에도 좋은 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에게 부여된 십자가는 그 성격이 동일한 것이다.

2. 개혁주의와 루터주의의 차이

개혁주의와 루터주의의 차이는 개혁파교회와 루터파교회의 차이를 통해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이상규가 쓴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단행본에 근거하여 그 차이를 기술하도록 하겠다.

(1) 신학의 출발점

죄에 대한 고민과 갈등으로부터 시작된 루터신학의 출발점은 '어떻게 의롭게 될 것인가?'하는 칭의론에 기초하고 있고, 루터교 신학은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으로 전개되었다. 반면에 루터보다 한 세대 후배였던 칼빈에 의해 전개된 개혁파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강조했다. 즉 개혁파는 구원 이후의 문제인 성화론을 강조하고 그 신학은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하나님 중심신학으로 전개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신학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앞서 십자가 신학을 이야기한 부분에서도 나왔지만 루터가 성화를 아예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칭의된 인간으로 당연하고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것이 성화라고 하였다. 그러나 성화 이전에 칭의가 먼저되어야 함을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개혁주의 곧 칼빈주의와 다르게 구분된다.

(2) 성경관과 전통

로마 카톨릭의 성경관은 66권의 정경 외에도 외경[2]과 전통[3]을 신앙과 생활의 표준으로 받아들인다. 또한 기록된 말씀 외에도 기록되지 않은 말씀, 곧 구전[4]이 있다고 믿고 있다.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이에 대한 반응으로 개최된 로마교 교회회의인 토렌트공의회(1546)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과 전통 양자 속에 담겨져 있으며, 이 둘은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따라서 동등한 숭배와 존경을 돌려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이 전통을 로마 카톨릭교회는 성전이라고 부른다. 전통은 '수전으로 내려오는 것으로서 성경의 원천이며,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을 더욱 확실히 밝혀주는 것'이라고 하여 어떤 점에서 기록된 성경을 해석하는 기초로서 66권의 성경보다 더 중시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로마 카톨릭의 성경관을 비판하고 반대한 점은 루터나 칼빈이나 다른 개혁자들이 동일했다. 개혁자들은 오직 66권의 정경만이 유일한 신학의 원천이며 신앙과 생활의 표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 말한 이 '전통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루터와 칼빈은 의견을 달리 했다. 로마 카

---

2) 정경 이외의 책으로 카톨릭이 받아들이는 책으로는 토비트서, 유딧서, 에스텔서, 지혜서, 집회서, 마카베오상, 하권 등이 있다. 로마 카톨릭교회는 이 책들을 제2경전이라 부른다(이상규, 2007).

3) 전통이란 교회 초창기부터 전해 내려오는 교리, 가르침, 실천적 관행과 행동규범, 경신의식, 종교적 체험 등과 공의회의 문헌과 역대 교회의 문헌, 교부들의 문집 등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전통이란 1) 교황이 발표한 칙령인 교령(Papal decrees), 2) 교회회의의 선언이나 결정사항(Pronouncement), 3) 교회가 관습적으로 지켜오던 관행들을 통칭한다.

4) 구전 전통은 그리스도와 사도들에 의해 가르쳐졌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세대를 걸쳐 구두로 전수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전통은 기록된 말씀보다 우선권을 가지며 도리어 기독된 말씀을 해석하는 근거가 된다.

톨릭의 '전통'을 폐기하는 데 있어서 루터는 칼빈만큼 철저하지 못했다.

즉 루터는 "성경이 금하지 않는 한 전통은 구속력이 있다"고 하여 전통에 대한 제한적 수용 입장을 보였으나, 칼빈은 "성경이 명하지 않은 한 전통은 구속력이 없다"고 하여 성경 이외의 것에 대하여 그 권위를 아예 인정하지 않았다(J. Bratt., 1959). 말하자면 칼빈은 루터보다 더 철저히 전통을 배격함으로 성경만을 신앙과 삶의 유일한 권위로 받아들였고, 결과적으로 로마교적 잔재를 말끔히 씻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루터는 성경이 명백하게 금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 전통도 구속력이 있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루터파 교회에는 로마교적 잔재들이 남아있게 되었다.

(3) 예배와 의식

전통의 폐기와도 관련되지만 예배와 의식에 있어서도 개혁파교회는 루터파보다 더 철저한 개혁을 지향하였다. 디아포라(diaphora)와 아디아포라(adiaphora)의 문제가 바로 그것인데, 디아포라는 규정적인 것, 혹은 본질적인 것(essential), 혹은 선과 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아디아포라는 디아포라의 부정으로 비 규정적인 것, 혹은 비본질적인 것(non-essential)을 의미한다. 또 선과 악으로 분류될 수 없는 것이나 행동을 의미한다. 디아포라는 '반드시'의 성격이 강하다면 아디아포라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의 영역에 속한다.

루터는 연속 설교[5]를 통해 교회 개혁과 신앙의 요의들을 제외하고 교회당의 종, 촛불, 예배의식, 성상, 성직자의 예복 등은 아디아포라의 문제로 간주하였다. 이는 곧 로마 카톨릭교회의 관행이나 예배의식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였다.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여러 관행들을 아디아포라, 곧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비본질적인 것으로 보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루터교회 안에는 로마 카톨릭적 예배 의식이나 관행들이 스며들게 되었다. 성직자의 복장이나 예배의식에서 로마 카톨릭적 흔적이 남아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러나 칼빈은 이런 점들을 아디아포라의 문제로 보지 않았고, 모든 전통을 성경에 근거하여 평가, 비판, 제거함으로써 교회 안의 모든 로마 카톨릭적 잔재를 제거하였다. 결과적으로 개혁파교회는 루터파보다 철저한 개혁을 단행하게 된 것이다.

(4) 교회-국가관

16세기 당시 루터교는 국가교회적 성격이 있었고, 국가의 교회간섭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다. 그러나 칼빈은 교회의 독립성을 강조하였고 이를 제도화하였다. 루터는 교회 안에 본질적으로 한 직분, 곧 말씀 봉사자만 생각했으나, 칼빈은 목사, 교사, 장로, 집사직을 두었다. 이는 교회를 국가(사회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키고 교회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다.

루터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씀에 근거하여(마 22:21) 정치와 종교, 혹은 세상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였다. 그리고 세속권세에 복종할 의무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의무를 구분하였다. 그리스도인은 두 왕국에 동시에 속해있고 따라서 세속 권세에도 복종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권세에도 복종해야 한다. 루터는 국가, 곧 세속왕국을 하나님의 왼손왕국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정의로운 뜻을 실현하는 도구로 이해하였다. 교회는 하나님의 오른손 왕국으로서

5) 1522년 3월 비텐베르크에 루터가 자리를 비웠을 때 과격한 인사들에 의해 개혁운동이 일어났다. 이에 그들은 로마교회의 제단을 부수고 성상들을 파괴하고 신부들을 끌어내리는 일들을 행했다. 그래서 루터는 교회개혁에서 본질과 비본질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고, 8번의 연속 설교를 통해 디아포라와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사랑의 뜻을 실현하는 왕국으로 보았다. 그런데 세속왕국이 비록 세속일에 관여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보았으므로 세속권력에 복종해야 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루터의 두 왕국설은 교회의 국가에의 종속을 정당화했다고 할 수 있다.

칼빈도 교회와 국가의 구분을 말했지만, 신정정치(theocracy), 곧 하나님의 직접적 통치를 강조하였다. 칼빈은 루터처럼 국가와 교회를 이원론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하에 두고자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다 더 철저히 강조하여 어느 것도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고 보았다.

(5) 성찬관

성찬론의 차이는 루터파와 개혁파 사이의 경계선이 되기도 한다. 루터의 신학(사상)은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점은 그의 성찬관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루터의 성찬론은 그리스도의 편재성에 기초하는데 성찬의 떡과 잔에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함께 계신다는 공재설의 입장을 취했다. 루터는 천주교의 화체설은 비성경적인 것으로 비판했으나, "이것은 내 몸이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여 성찬의 떡과 잔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리스도의 몸과 관련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성찬의 떡과 잔에 임재하신다고 보았다.

Ⅳ. 결론: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루터의 재조명

루터로 시작되었던 종교개혁이 칼빈이 정립한 개혁주의로 굳어지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개혁주의는 발전해왔음을 알 수 있다. 새롭게 만들어져간다는 사전적 정의와 같이 처음에 안주하는 사상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발전되어 갈 신학적 사상이다. 본디 개혁주의가 루터주의로부터의 개혁을 의미한다고 할 때,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루터의 사상은 이미 의미가 없다 칭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루터로 인해 로마시대 당시 교황이 신이 되어 세상을 통치하던 부패한 로마카톨릭교회 가운데 루터가 칭의론을 내세운 것은 목숨을 내건 행위였으며, 그것이 시초가 되어 현 개신교 신앙이 정립될 수 있었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다.

루터주의와 칼빈의 차이는 그 정도와 관점의 차이일 뿐 아예 다른 신학으로 서로를 적대시할 필요는 없다. 또한 칼빈 곧 개혁주의는 다른 신학에 대하여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루터주의가 지적받는 것은 로마 카톨릭의 잔재들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로마 카톨릭의 잔재들을 버리지 못한 이유는 루터주의도 '성경중심'이기는 하나 그 정도에 있어서 칼빈주의보다는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혁주의 교리의 핵심이 되는 칭의론과 십자가 신학을 루터가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현재 개혁주의 안에서 루터는 마치 배교자처럼 취급되고 있기도 하다. 그가 단지 '철저하게' 성경을 중심으로 신학 교리를 펼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처음부터 완벽한 신학이론은 없었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루터가 피운 종교개혁의 작은 불씨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개신교 또한 없었을 것이다. 개혁주의는 비록 개혁주의가 루터주의에 대한 개혁으로 세워졌기는 하나,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 현 개신교 신앙이 시작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참고문헌

이상규 (2007). 『(개혁주의 교회, 역사, 신학에 대해 간명하게 저술한)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부산: 고신대학교 출판부.

이양호 (2002). 『루터의 생애와 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하달리 (1990). 『개혁신학개론』. 형상사.

권태경 (2004).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과 루터 이해: 롤랜드 베인톤의 『Here I Stand』.” 『總神大論叢』. 24. 238-255.

김성수 (2013). “개혁주의 기독교교육의 원리와 과제.” 『개혁논총』. 28. 9-42.

김순환 (2006). “종교개혁 전후 예배의 고찰과 미래적 전망.” 『복음과실천신학』. 12. 182-210.

김영한 (2007). “기독교 세계관의 독특성 - 개혁주의 관점에서 -.” 『기독교철학』. 3(1). 9-49.

김홍기 (2005). “종교개혁신학의 재발견과 한국교회개혁의 과제.” 『신학과세계』. 53. 116-188.

문병호 (2013).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신학과 신앙의 요체.” 『개혁논총』. 27. 61-93.

박영실 (2015). “루터의 칭의 이해: 어거스틴의 맥락에서.” 『개혁논총』. 36. 181-212.

이상규 (2014). “로마 가톨릭 신학에 대한 개혁주의적 평가.” 『개혁논총』. 32. 2-3.

한상진 (2009). “개혁주의 기독교교육학의 과제.” 『개혁논총』. 10. 1-24.

한성기 (2004). “개혁주의의 입장에서 본 21세기의 교회론.” 『신학지평』. 17. 159-198.

박은제 (2004). “마틴루터의 칭의론과 십자가신학과의 상관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대학원.

M. Luther (1522), "Vorrede auf die Epistel Sankt Pauli zu den R mern"